



## 최남섭 후보 29대 협회장 당선 결선투표서 이상훈 후보에 173표차 승리

최남섭 후보가 치협 제29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4월 26일 The K-서울호텔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가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를 누르고 협회장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치협 역사상 62년만에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제로 개선돼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이어 진행된 29대 협회장 선거에서 1481명의 선거인단 중 참석한 980명이 투표해 투표율 66.2%를 보인 가운데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남섭 후보가 이상훈 후보를 173표라는 큰 차이로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는 최 후보가 435표(44.3%), 김 후보가 254표(25.9%)를, 이 후보가 287표(29.2%)를 얻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바로 2차 결선투표에 돌입, 1차 투표보다 195명이 적은 78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 결과 최남섭 후보가 478표(60.9%), 이상훈 후보가 305표(38.8%)를 획득해 최종적으로 최 후보가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심은 천심, 회원 여러분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모든 협회 정책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겠다"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다.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저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서 희망찬 치과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신임 부회장은 함께 바이소로 출마한 박영섭, 안민호, 장영준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3년 동안 치과계를 이끌게 된다.

한편 이날 선거는 1481명의 선거인단제로 처음 치러진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전국에서 선거인단들이 속속 도착해 면허번호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준비된 기표소 10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정각 오후 6시까지 1차 투표 마감결과 98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6.2%를 나타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곧바로 이어진 2차 결선투표는 오후 7시 42분까지 마감한 가운데 785명이 투표해 총 선거인단 대비 53.0%의 투표율을 보였다.



## '치과분쟁' 대응 매뉴얼 나왔다 '판례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 출간 발치 후 사망 등 과오·판례 일목요연

치과관련 의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과오 대처를 위한 판례 모음집이 최근 출간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의 후원을 받아 김 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 교수가 대표 집필한 '판례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 (대한나래출판사)는 치과에서 생긴 의료과오와 그에 대한 판결을 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은 1장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대해 논하고, 2장에서 판례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에 대해 과목별로 케이스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발치 후 사망한 케이스, 악교정 수술 후 사망한 케이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감염 관련 분쟁, 교정후유증, 근관치료, 소아치과 관련 의료과오와 판결을 기술했다. 또, 치과의원 임대계약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임플란트 동시서,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맥브라이드 장애표, 국가배상 시행령 등을 부록으로 실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김 진 교수와 박정훈 변호사, 이용환 변호사, 강지연 교수(한림대), 김선영 교수(건양대), 김학균 교수(충남대), 윤경인 교수(가톨릭대), 윤현중 교수(가톨릭대), 임영준 교수(서울대), 최 봄(가톨릭대)가 공저자로 참여했고, 강창조, 백승업 변호사가 감수를 맡았다. 김 진 교수는 "그동안 의료 소송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조언을 해오면서 판례들을 묶어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개는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문제는 사실 병원 시스템 전반에서 기인하는 총체적인 문제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손님응대, 환경 등 시스템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281건의 의료 중재·조정 건수 중 치과는 201건(8.8%)을 차지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에 이어 네 번째로 의료분쟁이 많은 영역으로 꼽혔다.



## 박준우 교수, 제5대 대한치의학회장 당선 분과학회협의회 선거…감사는 이종철 · 이종헌

박준우 교수(강동성심병원)가 제5대 대한치의학회장 당선됐다. 4월 10일 대한치학회 분과학회협의회는 치협 대회의실에서 투표를 통해 제5대 대한치학회 회장에 박준우 교수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종철 원장, 이종헌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28개 분과학회 회장과 분과학회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 총 30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기호 2번 박준우 교수는 21표를 득표해 8표를 얻은 기호 1번 권호근 교수(연세치대)를 큰 표 차이로 앞서 당선됐다. 기권은 한 표가 나왔다.

이로써 박준우 교수는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을 겸임, 향후 구성될 29대 집행부 중 가장 먼저 결정된 임원이 됐다.

박준우 신임 대한치의학회장은 “권호근 교수님은 경험과 스펙이

출중한 분이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내건 공약에 대해서는 회무를 운영하면서 협의회에 계속 보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너와 내가 없이 오롯이 한 팀이므로 28개 분과학회의 참여와 도움을 바란다.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경욱 치의학회장은 “3년이라는 세월이 어 느덧 지나 입기의 막바지로 왔다”며 “3년 동안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분과학회장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감사 선출에 관한 회칙 개정 ▲분과학회 정기보고서 분석, 워크숍 성료 치의학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 회계 일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과시켰다.



## 장애인 치과정보 ‘한눈에’ “개원가 활용하세요” 치협 홈페이지에 안내 시스템 구축

치협이 장애인 치과진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진료에 편의를 제공한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하단 부분에 위치한 ‘장애인치과진료구강보건’ 콘텐츠를 클릭하면 장애인 치과진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장애인 치과진료 웹사이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장애인 치과진료 병원 ▲치과계 단체, 유관재단의 장애인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치과의원 등 4가지 콘텐츠로 구성,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을 안내한다. 현재 160여개 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앞으로 250여개로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개원 치과의원’ 콘텐츠를 클릭하면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주변의 일반 개원 치과의원 리스트가 안내돼 환자들이 직접 장애인 치과의원을 찾아가거나 일선 개원가에서 장애인

환자를 리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치과는 ‘장애인치과참여등록’을 클릭해 리스트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삭제도 가능하다. 또 지역별 찾기가 가능해 특정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한 장애인 치과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치협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맞춰 치협 홈페이지의 한 콘텐츠로 자리 잡아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을 안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웹페이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해 왔다.

배형수 기획이사는 “치협 홈페이지 개편 시기에 맞춰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안내를 치협 홈페이지의 한 콘텐츠로 구성해 정보 접근성 강화,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 의원의 경우 직접 등록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